

한·미 FTA가 미치는 영향 및 국내 축산업 경쟁력 제고방안

지난 6월 2일 농림부가 한·미 FTA, DDA협상등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축종별 품질경쟁력제고 및 가축질병예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농업분야 경쟁력제고방안을 발표했다. 이에 본지는 축산부문의 내용을 발췌해 요약·개제함으로써 독자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.

<편집부>

◆ 한·미 FTA 예상영향 및 협상방향

1. 농업 예상영향

▲농업 전체적으로 보면, 상대적으로 경쟁력 우위에 있는 미국산 수입증가로 국내농산물의 생산액이 상당부분 감소할 전망이다

• 농업생산액(04) : 36조원(쌀 10, 축산 10.8, 채소 7.7, 과실 2.9 등)

▲모든 농산물 관세를 즉시 철폐하고 검역상 수입제한을 모두 해제하는 경우를 전제로 할 때, 연간 약 1조 8,600억원의 농업생산액 감소 추정(04.5, 한국농촌경제연구원분석)

▲그러나 실제 피해 규모는 관세철폐기간 등 협상결과와 검역상 수입제한 유지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

관세를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철폐하고, 검역상 수입제한이 유지될 경우, 농업생산액 감소는 연간 약 9,000억원으로 축소

▲산업별로 보면, 축산과 과수부문 식용콩 등 일부 곡물부문에 대한 영향이 상대적으로 크고, 채소·화훼부문은 영향이 적을 전망이다

2. 축산분야 예상영향

▲쇠고기는 큰 가격차(2.6배)에도 불구하고, 품질차이 등으로 40% 내외의 시장점유율을 유지하고 있으나, 관세(40%) 철폐시 한우시장 잠식 우려

• 수입육 시장은 호주·뉴질랜드 등 제3국산 수입량이 상당부분 미국산으로 대체될 전망이다

▲돼지고기, 닭고기는 현행 관세(25~20%) 수준을 고려할 때, 가격인하 효과는 상대적으로 제한적일 전망이다

• 캐나다, EU, 태국산 위주에서 미국산으로의 수입국 전환 효과 예상

▲탈지분유 등 유제품과 천연꿀은 고관세 품목으로 관세철폐시 상당한 피해 우려

• 신선우유·계란은 신선도·운송분배 등으로 피해가 미미할 전망이다

3. 협상방향

▲협정부문 대응방안

• 농산물 특별긴급관세(SSG)제도는 관세철폐로 수입이 급증하는 품목에 대한 안전장치로 필요한 제도이므로 최우선과제로 관철

• 수입쿼타(ITRC) 관리방안은 원재의 운영 방식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 되도록 하면서 국제기준에 따라 공정성/투명성을 제고

• 검역/위생(SPS) 문제는 WIO 등 국제규범 준수 여부등의 논의를 위한 양국간 접촉장구개설 수준으로 대응

◆ 축산분야 경쟁력 제고대책

▲UR협상 이후 개방 확대에도 불구하고 그간의 투융자에 힘입어 전업농 중심의 규모화가 이미 진전되었고, 품질 고급화·차별화로 신선냉장육·고급육 중심으로 안정적인 국내산존립기반 마련

• 축산전업농과 그 사육비율 : ('95) 5,200호, 42.3% → ('05) 15,000, 73.4

• 쇠고기 1등급/돼지고기 A등급 준원율 : ('95) 12.8/6.3% → ('05) 47.9/37.1

• 국내산 시장점유율('04) : 쇠고기44.2%, 돼지고기84.9%, 닭고기 90%

▲고품질·브랜드화·안전성 등 품질경쟁력 제고와 가격절감사전예방등품목별대책을 계속 추진

▶한우 : 지역별 우수브랜드 육성으로 국산 쇠고기 시장차별화

• 광역단위 브랜드 경영체를 조직화하여 2013년까지 브랜드준하비율을 50%로 확대('05 : 30%)

광역브랜드 : 전남 순환한우, 강원 하이룩, 경기 한우람등

• 인공수정확대및 고급육생산기술교육 강화등을 통해 한우1등급이상준원율을 60%까지 향상('05 : 48%)

▶돼지 : 품질고급화및 친환경양돈산업으로 발전

• 우수브랜드 중심으로 브랜드준하비율을 70%('05 : 48%)까지 확대

• 친환경 축산직물제와 연계, 분뇨처리 적정화 및 약취제거

▶닭 : 질병관리강화로생산성 향상및 수출 확대

• 종계장·부화장에서부터 질병에 강한 사육환경 개선

- 뉴캐슬병 예방약 공급, 인플루엔자 등 정기검진 강화

• 닭고기 포장유통 의무화('07)로 수입산과 시장 차별화

▲현재의 국내 시장점유율 유지를 위해 확실한 시장차별화제도징착및 경영안정장차강화

• 소비자가 쇠고기의 품질과 사양관리를 확인할 수 있도록 2004년부터 시범추진중인 쇠고기 이력추적제를 2008년부터는 전두수를 대상으로 실시

• 음식집 식육원산지표시제도의 초기 정착및 확대추진

- 2007년영업장면적 300㎡ 이상(552개)에서 시작하고, 2008년부터는 200㎡ 이상(2,011개)으로 확대 추진(관계부처협조)

◆ 투융자계획 조정 및 제도개선

▲한·미 FTA 등 대내외 여건변화에 대응해 2004년 2월에 수립된 농업·농촌종합대책을 금년 중집진·평가해조정

• 농업인·소비자·전문가·관계부처 등이 참여하는 농업·농촌종합대책집진단(단장:농림부 장관)을 설치('05.12) 운영중

▲조정된 농업·농촌종합대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법·제도등을 정비하고 119조원투융자계획도조정

• 농업·농촌종합대책 보완 내용을 반영, 농업·농촌기본법과 FTA이행특별법등을 개정

• 119조원 투융자사업 집행실적을 평가하고, 한·미 FTA/DDP농업협상영향을 반영해 투융자규모도 조정